

# 전북 출구조사 결과... 도지사 '경합'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MBC 등 방송3사 기준  
이원택 48.5% 김관영 46.3%  
JTBC 기준 이 후보 50.9%  
김 후보 보다 6.3%p 앞서



개표작업으로 분주한 전주 덕진개표소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가 마무리된 3일 전주 덕진구 덕진체련공원 실내배드민턴장에 마련된 개표소에서 관계자들이 개표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제공)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선거가 출구조사 결과 초집전 양상을 보이고 있고, 전북도 교육감 선거에서는 전호성 후보가 우세를 보이며 최종 개표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3일 지상파 3사인 KBS, MBC, SBS가 공동 발표한 출구조사에 따르면 이원택 후보는 48.5%, 김관영 후보는 46.3%를 기록해 2.2%포인트 차이의 박빙 승부를 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구 조사의 표본오차가 95% 신뢰수준에서 시·도별 ±1.4~2.5%포인트인 점을 고려하면 두 후보의 격차는 오차 범위 안에 포함돼 사실상 경합 지역으로 분류되어 최종적으로 개표가 완료되어야 정확한 결과를 알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선거는 '도민 후보'를 내세운 김관영 후보의 무소속 출마가 민주당 이원택 후보와의 양강 구도를 형성하면서 이번 전북지사 선거가 치열한 여대급 접전으로 전개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한편, 전북도 교육감 선거에서는 전호성 후보 56.2% 이남호 후보 43.8%로 전호성 후보의 우세가 오차 범위 밖 우세이다.

그리고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치러진 전북 2개 선거구에 민주당은 김의겸 후보와 박지연 후보를 전략 공천했다.

두 지역은 민주당 후보의 우세 지역으로 출구 조사를 실시하지 않아 그 결과를 알 수 없지만 민주당 두 후보의 승리로 결정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 전북의 사전선거 투표율은 35.05%를 기록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는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수치이자 2022년 제8회 지방선거 당시 24.41%보다 10.64%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전국 최고 상승 폭이다.

전체 선거인 150만 9,854명 가운데 94만 6,653명이 투표에 참여했으며, 이 중 59만 3,442명이 사전투표에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시·군별 투표율은 순창군이 79.9%로 가장 높았고, 군산시가 57.9%로 가장 낮았다. 장수군 78.3%, 고창군 77.7%, 진안군 77.6%, 임실군 76.5% 등 농촌 지역의 높은 참여율도 눈길을 끌었다.

반면 JTBC 출구 조사에서는 이원택 후보가 50.9%, 김관영 후보가 44.6%를 기록해 6.3% 포인트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다.

두 기관의 조사 결과에 차이가 나타난 배경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지상파 3사가 사전투표 경향을 전화조사 방식으로 보정한 반면, JTBC는 과거 선거 데이터와 심층 여론조사 결과를 결합한 메타분석 알고리즘을 활용해 예측치를 산출했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번 출구조사 결과로 전북은 도지사 선거에서 부산·대구·강원과 함께 전국 4대 경합 지역 가운데 하나로 분류됐다.

출구조사 발표 직후 양측 캠프의 반응도 모두 신중 모드로 들어갔다. 이원택 후보 측은 "환호하며 일단 경쾌한 마음으로 개표 결과를 지켜보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고, 김관영 후보 측은 "오차범위 내 결과인 만큼 최종 개표 전까지 승패를 예상할 수 없다"며 결과를 지켜보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선거는 '도민 후보'를 내세운 김관영 후보의 무소속 출마가 민주당 이원택 후보와의 양강 구도를 형성하면서 이번 전북지사 선거가 치열한 여대급 접전으로 전개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한편, 전북도 교육감 선거에서는 전호성 후보 56.2% 이남호 후보 43.8%로 전호성 후보의 우세가 오차 범위 밖 우세이다.

다. 이번 선거에서 전북의 사전선거 투표율은 35.05%를 기록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는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수치이자 2022년 제8회 지방선거 당시 24.41%보다 10.64%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전국 최고 상승 폭이다.

최종 투표율 역시 62.7%로 집계돼 지난 제8회 지방선거보다 14.1%포인트

나 높아졌다. 전체 선거인 150만 9,854명 가운데 94만 6,653명이 투표에 참여했으며, 이 중 59만 3,442명이 사전투표에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시·군별 투표율은 순창군이 79.9%로 가장 높았고, 군산시가 57.9%로 가장 낮았다. 장수군 78.3%, 고창군 77.7%, 진안군 77.6%, 임실군 76.5% 등 농촌 지역의 높은 참여율도 눈길을 끌었다.

정치권에서는 전북도지사 선거가 초반 양상으로 전개되면서 유권자들의 관심과 참여가 크게 높아진 것이 투표율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하고 있다.

전북 유권자들의 선택이 향후 전북 정치 지형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게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별취재반

## 전북 광역의회 지역구 의원 당선인 명부

선거구	전주1	전주2	
증명사진			
이름(나이, 정당)	이병도(60, 민)	진형석(50, 민)	
전주3	전주4	전주5	전주6
전주7	전주8	전주9	전주10
미개표			
이름(나이, 정당)	남관우(68, 민)	서난이(39, 민)	이명연(60, 민)
전주11	전주12	군산1	군산2
군산3	군산4	익산1	익산2
익산3	익산4	익산5	정읍1
정읍2	남원1	남원2	김제1
김제2	완주1	완주2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1	고창2	부안	

# 서울 14개 투표소 용지부족... 선관위 "책임 통감, 깊이 사과"

허철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본투표 일인 3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소중한 주권을 행사하기 위해 투표소를 찾아주시는 국민께 불편을 드리고, 공정한 선거 관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깊이 사과드립니다"고 했다.

허 사무총장은 이날 오후 경기 과천시 시 중앙선관위 과천청사에서 열린 대국민 사과 및 현장 브리핑에서 "선거 관리위원회는 6월 3일 선거일 투표 과정에서 일부 투표소의 투표용지 부족으로 국민 여러분께 큰 혼란과 심려를 끼쳐 드렸다는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선관위는 해당 사실을 인지한 즉시 투표용지가 부족한 투표소로 투표용지를 이송했으며, 해당 투표소에

“공정한 선거 관리, 국민의 신뢰 훼손한 점에 책임 통감  
개표 종료 즉시 원인·문제점 파악해 재발방지책 마련”  
송파 12곳·강남 1곳·광진 1곳 등 투표소에서 용지 부족  
“송파구 전체 유권자수의 50% 인쇄한 것으로 파악”

서 대기 중인 유권자는 마감 시각이 지나더라도 정상적으로 투표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안내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관위는 이번 사건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으며 개표가 종료되는 즉시 일부 투표소의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원인과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여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미흡한 준비와 대처로 심려를 드리게 되어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고 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20분 기준 서울 송파구 12곳, 강남구 1곳, 광진구 1곳 등 총 14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했다. 동별로는 가락2동, 잠실2동, 잠실3동, 잠실7동, 문장2동, 청담동, 구의3동 등이다.

아울러 선관위는 오후 6시40분 기준 다른 투표소에서는 상황이 해소됐고, 송파구 3개 투표구에서만 투표가 계속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이상선 선관위 선거1국장은 "이런 사태가 과거 선거에서 발생한 보고를 받은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송파구의 경우 전체 유권자수의 50%(규모를)를 인쇄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말했다.

한편 선관위는 이날 공지를 내고 "제9회 지방선거 투표율이 지난 선거보다 높아 송파구 일부 투표소에서 준비된 투표용지가 부족해 현재 송파구 선관위에서 해당 투표소로 투표용지를 이송 중"이라고 했다.

아울러 "대기 중인 유권자는 투표 마감 시각이 지나더라도 정상적으로 투표를 할 수 있으니 용지가 부족해 오늘 투표가 불가능한 것이라는 오해가 없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뉴스1

### “군민의 지지, 고창 대도약 원동력”

**심덕섭 고창군수 당선인**

후보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고창발전을 바라는 마음은 당을 떠나 우리 모두 하나입니다. 앞으로 고창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앞으로 민선 8기에 추진해오던 정책들을 더욱 진화시켜 도전적인 자세로 고창대도약을 이끄는 선봉에 서겠습니다. 자랑스러운 내 고향 고창이 더 풍족해지길, 사랑하는 내 가족의 삶이 더 따뜻해지길 바라는 여러분의 목소리도 가슴에 깊이 새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고창군민 여러분, 다시 한 번 저 심덕섭을 선택해 주신 데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선거에서 저와 더불어민주당에 보내주신 여러분의 뜨거운 지지야말로 고창대도약을 추동할 가장 강력한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지향하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한 단단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거듭 고창군민 여러분의 성원으로 서겠습니다. 자랑스러운 내 고향 고창이 더 풍족해지길, 사랑하는 내 가족의 삶이 더 따뜻해지길 바라는 여러분의 목소리도 가슴에 깊이 새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3선의 경험과 추진력으로”

**권익현 부안군수 당선인**

군민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으로 부안 최초의 3선 군수라는 영광스러운 책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오늘 승리는 저 개인의 승리가 아닌 부안의 멈추지 않는 발전과 중단 없는 발전을 선택하신 위대한 부안군민 모두의 승리입니다. 머리 숙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선거 기간 동안 군민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따뜻한 격려와 준엄한 체질될 모두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아울러 부안의 발전을 위해 함께 선전하며 멋진 경쟁을 펼쳐 주신 다른 후보님들께도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제 경쟁과 갈등의 시간은 끝났습니다. 저는 저를 지지해 주신 분들은 물론, 지지하지 않으셨던 군민 한 분 한 분의 뜻까지 모두 온전히 받아들여 '하나된 부안'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3선의 풍부한 경험과 강력한 추진력으로 오직 부안 발전과 군민 행복만을 바라보며 중단 없이 전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를 믿고 부안의 미래를 맡겨주신 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 (inf.rec.gov.kr) 참조